

2020-CR-07

작은연구 좋은서울 20-06

문화예술 활동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환경에 대한 연구

이도원

이도원 성균관대학교 휴먼ICT융합학과
dojang93@gmail.com

정하영 성균관대학교 휴먼ICT융합학과
lmo3088@naver.com

박민철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akftmalffk@naver.com

‘작은연구, 좋은서울’은 시민 스스로 일상 현장의 문제를 연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연구원의 연구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환경에 대한 연구**



연구책임

이도원 성균관대학교 휴먼ICT융합학과

연구진

정하영 성균관대학교 휴먼ICT융합학과

박민철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와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서론	1
1_연구개요	1
1) 시각장애인 인구 현황	1
2) 연구배경 및 목적	1
3) 시각장애인 문화 화동 지원 현황	4
2_연구내용 및 방법	7
1) 연구내용의 구성	7
2) 연구방법	7
02 본론	10
1_시각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실태 조사	10
1) 실태 조사를 위한 시각장애인 설문조사	11
2_국내 미술관의 전시 환경에 관한 연구	19
3_해외 미술관 프로그램 사례	26
1)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Picture This! Workshop’와 ‘Seeing Through Drawing’	26
2)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 ‘Mind’s Eye’	29
3) 미국 휘트니 미술관 ‘Verbal Description and Touch Tour’	30
4) 영국 테이트 미술관 ‘Audio Described Tour’와 ‘Touch Tour’	30
5) 일본 갤러리 톰	31
4_국내 미술관 사례	33
1) 어둠 속의 대화	33
2) 국립현대미술관	34
3) S-Gallery	35

03 정책 제언	37
1_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제언	37
1)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작품감상을 위한 전시환경 구축이 필수조건	37
가) 유도 블록	37
나) 안내견	39
2_서울시 차원의 정책 제언	39
1) 시각장애인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되어야 함	39
가) 촉각을 활용한 작품 전시	39
나) 시각장애인 참여 형태의 창작활동	40
2) 대부분의 미술관에 구비 된 오디오 해설의 경우 시각장애인에 부적합한 경우	41
3)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내의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	43
04 결론	44
1_연구 결론	44
2_연구 한계	46
참고문헌	47

표 목차

[표 1-1] 시각장애인의 주된 문화생활(이양희 외, 2019)	2
[표 1-2] 서울시 내의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예시	5
[표 1-3]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2020,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5
[표 1-4]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 규모(복지타임즈, 2020.12.10.)	6
[표 2-1]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지의 내용(이민경, 2018)	12
[표 2-2] 외출 빈도와 관련된 교차 분석	14
[표 2-3]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차 분석	16
[표 2-4] 문화예술 활동 개선사항과 관련된 교차 분석	18
[표 2-5] 안내견이 겪는 차별의 예시	20
[표 2-6] 점형블록과 선형블록 설치기준(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2018)	21
[표 3-1]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해설 지침	42
[표 3-2]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해설 구성요소 (김영인, 2019)	43

그림 목차

[그림 1-1] 촉각으로 경험하는 미술 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	3
[그림 1-2] 부분시각장애인의 시선 예시	8
[그림 2-1] 장애인의 문화예술공연 관람 현황	11
[그림 2-2] 설문 조사 답변 결과	13
[그림 2-3] 설문 조사 답변 결과	15
[그림 2-4] 설문 조사 답변 결과	17
[그림 2-5]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안내견	21
[그림 2-6] 바닥과 유사한 색을 사용한 유도 블록 예시	22
[그림 2-7] 시각장애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유도 블록	23
[그림 2-8]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 예시	24
[그림 2-9] 입구 등을 강조하기 위해 빨간색으로 표시	25
[그림 2-10] 작품을 직접 손으로 느껴보는 감상자	27
[그림 2-11] 작품을 감상한 뒤 창작활동 체험	28
[그림 2-12] 구겐하임 미술관의 “Mind’s Eye”	29
[그림 2-13] 휘트니 미술관의 ‘Verbal Description and Touch Tour’	30
[그림 2-14] 시각장애인의 작품 감상 모습	31
[그림 2-15] 갤러리 톨의 모습	32
[그림 2-16] 어둠속의 대화 홈페이지	33
[그림 2-17] 국립현대미술관 ‘광장’ 전	35
[그림 2-18]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S-Gallery에서 개최한 촉각명화전	36
[그림 3-1] 3D 프린터를 활용한 촉각 작품	40

01. 서론

1_연구개요

1) 시각장애인 인구 현황

시각장애인이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아주 약한 시각만 남아 있어서 앞을 보기 어려운 사람을 뜻한다. 시각계의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갖가지 기능장애를 총칭하며 시각기능에 제한이 있는 장애로 정도에 따라 ‘전맹’과 ‘부분시각장애’로 구분된다(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2021). 전맹은 시력이 0으로 빛을 지각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의미하고 부분시각장애는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시력이 나쁜 상태를 의미하며 좋은 눈의 시력이 0.3 이하이거나 시야가 10도 이내로 줄어들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2021).

2019년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약 395,000명으로 그 중 42,000명이 이러한 시각장애를 갖고 있다(서울복지포털, 2019). 전국의 시각장애인의 수가 약 253,000명으로 전체 시각장애인 중 17%의 시각장애인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다(e-나라지표, 2020).

2) 연구 배경 및 목적

시각장애인의 경우 사물뿐만 아니라 사물 주위의 환경을 인지할 수 없어 야외 활동을 하는 데 수많은 환경적 어려움을 겪는다(김창기, 서정민, 2015). 특히, 이 연구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중 미술관 또는 전시장의 환경에 대하여 연구한 이유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적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술 전시문화를 향유하는 데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김영인, 2019).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의 취미생활은 TV 시청, 영화관람, 음악

감상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미술 창작 활동 또는 미술관 관람을 즐기는 시각장애인의 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이민경, 2018).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예술행사 관람률은 2012년 69.6%, 2014년 71.3%, 2016년 78.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예술행사 관람 중 약 13%는 미술전시회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의 문화예술행사 참여 실태는 지난 몇 년간 거의 참여도를 찾아보기 힘들다(이민경, 2014). 최근 1년 동안 한 번도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는 무려 97%를 차지하기도 했다. 시각장애인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는 유일하게 영화 관람이 23.1%로 높게 나타났으며 미술전시회의 참여도는 1% 미만에 그쳤다(웰퍼어뉴스, 2017.12.06.).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이 우리 사회에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1] 시각장애인의 주된 문화생활(이양희 외, 2019)

문화생활	빈도 (명)
영화관람	42
음악감상	21
전시예술품감상	3
스포츠/레저활동	6
기타	11

사회적 편견과 함께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시각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편의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 인권위원회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300m 미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55개소의 접근시설(주출입구, 장애인전용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이 10%대의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특히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은 ‘0’으로 단 한 곳도 각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각이 제한된 시각장애인이 미술관 등을 찾아 제대로 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눈이 아닌 청각, 촉각 등 기타 감각을 활용해 작품을 감상해야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장애예술 자체가 문화예술 분야에

서 주류가 아닌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서 3D 프린팅 등 다양한 촉각 인쇄기술로 미술 작품을 재현하여 시각장애인이 시각 이외의 감각을 활용하여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영국의 테이트 미술관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도 중이다. 하지만 국내 미술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시도되지 않으며 대부분 이벤트 형식으로 짧게 전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출처 :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다' 공식 홈페이지

[그림 1-1] 촉각으로 경험하는 미술 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

또한, 미술관 내의 편의시설 부족과 지자체의 역할 부재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이 침해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시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측면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의 차별 요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차원의 사업 진행 시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고려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외 미술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국내의 사례와 비교해 보완해야 할 부분, 한계점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내

전시장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환경과 편의시설을 조사하여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점과 실용적인 해결책 및 관련 부처의 역할을 제안한다.

향후 국내 미술관에서 시각장애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만족도를 향상하며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감상에 필요한 Barrier-Free 전시 환경 구축과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법률을 마련한다. 시각장애인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작품 감상이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며 차별 없는 문화 향유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시각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현황

대다수 장애인복지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적, 재정적 노력은 주거 공간의 제공, 경제적 지원 등 대부분 환경적 요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홍애령, 2015). 하지만 이것만으로 시각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바를 표현하는 문화예술 활동은 인간의 내적 본능에 따른 것이므로 어떤 이에게나 공평하게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200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 및 욕구조사(문화관광부, 2007)에 의하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예술관람(27.5%), 문화시설이용(54.6%), 문화예술교육(29.8%)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병태, 2007). 자료에서 알 수 있듯 시각장애인은 문화예술 활동의 사각지대 속에서 누구나 표현하고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장애인의 기본적 문화 향유권을 위해 서울시와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지원 중이다.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1-2]와 같다. 이 밖에도 부산시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용은 [표 1-3]과 같다.

[표 1-2] 서울시 내의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예시

사업명/프로그램명	사업내용	주관
2021년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	2021년 서울에서 예술창작활동 및 작품을 발표할 장애예술인을 선정하여 지원	서울문화재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스타트업 지원	시각장애인과 저시각자를 위한 경복궁 점,목자 촉각그림 관광카드 개발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시각장애인 여가문화지원사업	시각장애인을 위한 연극, 뮤지컬 등의 문화 공연 지원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실로암시각장애인 복지관 내의 S-Gallery에서 읽어주는 미술 프로그램 실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표 1-3]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2020,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유형	사업내용
창작 활성화 지원	장애인 예술가의 예술 창작 및 발표 지원
문화예술 향유 지원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지원
커뮤니티 예술 활동 지원	동호회, 커뮤니티 등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지원
국제교류 활동 지원	장애인 예술가 및 기획자의 국외 연수, 리서치 활동 지원
장애인 특성화 축제	시청각, 발달 장애인 대상 특성화 축제 기획 및 운영
시각장애 문화예술 정보지 발행 지원사업	시각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점자 등 정보 콘텐츠 제작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	장애인 미술가들의 작품 전시, 판매 및 프로그램 운영
국제 장애인 미술교류전	국내외 장애인 미술가들의 기획 전시 및 협업 프로그램 등 운영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지원 사업이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또 다른 문제이다. 201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병태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70억 원의 예산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총연합회와 그 회원 단체에게 대량 지원됐다(윌퍼어뉴스, 2017.12.06.). 이 때문에 특정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예술가 또는 단체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장애인 문화예술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거나 소외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

다.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장애인 문화예술을 위한 교육과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예술 지원 예산'을 2020년 대비 58% 증가한 247억 원을 확보했다(복지타임즈, 2020.12.10.).

[표 1-4] 장애인 예술인 지원 사업 규모(복지타임즈, 2020.12.10.)

내용	예산 규모 (100%)
장애인 예술인의 직간접 창작지원 사업	125억 원 (51%)
장애인 예술인을 위한 전문 교육	4억 원 (1.5%)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사업, 장애인 예술인력 양성 사업	15억 원 (6%)
국제장애인예술주간 사업 등 국제교류 사업	12억 원 (4.5%)
장애인 예술 공연장 조성 사업	84억 원 (34%)
장애인 예술인 일자리 지원	7억 원 (3%)

장애인 예술 지원 예산 등이 많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병태 부연구위원은 “정책 측면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의 차별 요소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 전반에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본문에서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토대로 시각장애인이 이러한 지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2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의 구성

연구내용은 우선 국내와 해외 미술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을 비교하였다. 비교를 통해 해외의 우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며, 국내 미술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형 및 개선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제2장 본문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시각장애인이 전시장 등에 방문하여 실제로 겪는 어려움 또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라는 점을 조사하여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다음은 해외 미술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명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휘트니 미술관, 영국의 테이트 미술관, 일본의 갤러리 톱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활동에 적극적인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는 국내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시각장애인과의 정안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둠속의 대화’, 아시아 최대의 ‘국립현대미술관’,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S-Gallery’의 전시 환경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조사한 뒤 앞서 조사한 해외의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보완 및 수정 부분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의 전시 환경과 관련된 현행 제도를 파악하였고 해당 정책 및 시행령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시각장애인의 전시 환경과 관련이 있는 유도블럭, 안내견과 관련된 제도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3장 정책 제언에서는 앞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중앙 정부와 서울시 차원의 시각장애인의 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방향의 정책 제언을 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주로 설문조사와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실태 및 국내 미술관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의견을 종합하였다. 설문 결과 내용을 [선천적 / 후천적], [전맹 / 부분시각]으로 분류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각 집단 별 차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12명의 시각장애인이 참여하였다. 12명 중 4명은 전맹, 8명은 부분시각장애인이 포함되었다. 12명의 설문 참가자는 시각장애인 복지관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설문을 위해 중복장애 시각장애인은 제외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만들었으며, 최종적으로 맹학교에서 시각장애인 학생의 미술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의 수정 및 도움을 받아 설문을 완성하였다.

이후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에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선천적 / 후천적], [전맹 / 부분시각]으로 구분하였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선천적 시각장애인과 후천적 시각장애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전체 시각장애인 중 약 5%에 해당할 정도로 소수이며 대부분 후천적 시각장애인에 속한다. 선천적 시각장애인과 후천적 시각장애인의 가장 큰 차이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경우 색깔을 알고 공간지각력이 있지만 청각과 촉각만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은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후천적 시각장애인이지만 유아기에 시각장애인이 된 경우 색이나 공간지각력이 떨어져 선천적 시각장애인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전맹 시각장애인과 부분 시각장애인으로 구분하였다. 전맹의 경우 빛을 전혀 지각하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의미하며, 부분 시각의 경우 명암을 구분하는 광각이 있거나 희미하게 색을 구분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잔존 시각기능을 이용하여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출처: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그림 1-2] 부분시각장애인의 시선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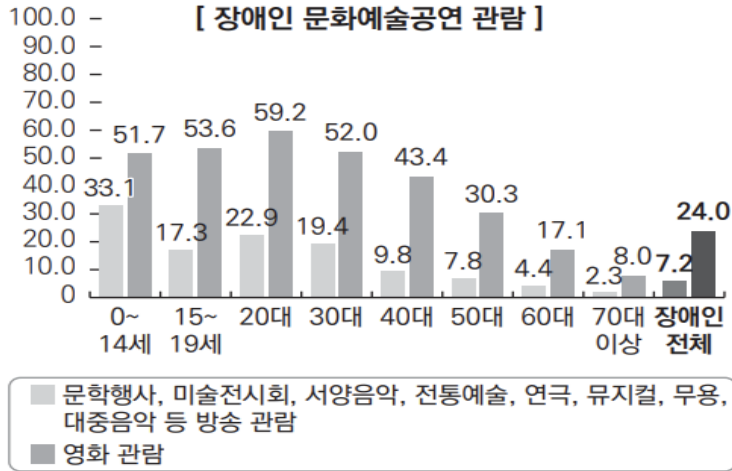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을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집단별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내 및 해외 미술관 등의 사례 조사를 통해 현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전시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전시 환경을 제안하였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차원의 정책을 구분하여 정책 제언을 하였다.

02. 본론

1_시각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실태 조사

문화예술 활동이란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 등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문화적 체험을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이영라, 이숙중, 20219). 이 연구에서는 [그림 2-1]에서 알 수 있듯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참여율이 적은 미술 전시회, 박물관 등을 문화예술 활동의 범위로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이 TV시청 또는 영화 감상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며, 미술관 또는 전시관에 방문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서 시각장애인이란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각지대란 시각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별도 규정은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지 못하며 미비한 서비스로 여전히 시각장애인은 문화예술 활동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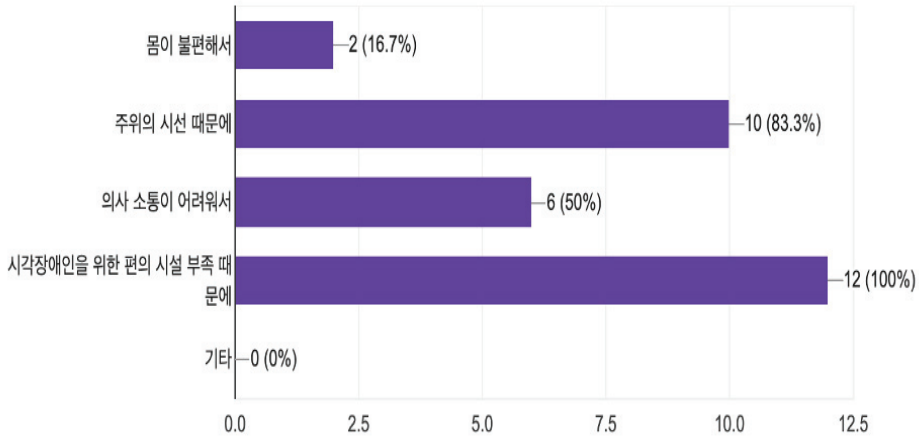
[그림 2-1] 장애인의 문화예술공연 관람 현황

1) 실태 조사를 위한 시각장애인 설문조사

인간의 권리로서의 문화예술향유권 관점에서 시각장애인의 전시관람 여가활동 참여의 현실적 요구를 고려하고 환경적 상황을 고려한 실천 방안이 논의 될 필요가 있다(이양희, 김상원, 엄문설, 안새미, 조준동, 2019).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는 12명의 시각장애인이 참여하였다. 이 중 8명은 부분시각장애인, 4명의 전맹 시각장애인이 참여하였다. 설문은 총 7개의 질문으로 구성했으며 해당 질문은 이민경(2018)의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문화, 여가활동 실태와 정책과제”에서 사용 된 설문의 내용을 토대로 제작하였다. 선행연구의 경우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한 그룹으로 기타 장애인과의 외출 빈도, 문화예술 활동 빈도, 만족도, 불만족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시각장애인의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설문에서는 시각장애인만의 구체적인 자료를 도출하며 서술형 문항을 포함시켜 인터뷰 형식으로 자세한 피드백을 얻고자 했으며 내용은 [표 2-1]과 같다.

[표 2-1]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지의 내용(이민경, 2018)

구분	설문 내용	보기
1	시각장애인의 30% 정도는 월 5회 미만으로 외출을 한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외출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몸이 불편해서 주위의 시선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의 시설 부족 때문에 기타
2	지난 1년간 미술관 또는 전시관에 방문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방문한 횟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없음 1~3회 4~7회 8회 이상
3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 및 욕구는 어느 정도인가요?	없음 또는 거의 없음 약간 있음 매우 많음
4	(서술형) 미술관에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5	미술관에 방문하여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작품 감상에 대한 의지 부족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부족 장애인을 위한 시설 또는 서비스의 부족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의사소통의 어려움 기타
6	미술관의 전시 환경을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나요?	1. 개선 사항 없음 2.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 3.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작품 감상을 위한 전문 큐레이터 4. 형식적인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전시 환경 5. 제도 개선 6. 기타
7	(서술형)앞서 언급한 희망사항이 개선된다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그림 2-2] 설문 조사 답변 결과

첫 번째, [그림 2-2]는 설문조사 1번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답변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결과에 의하면 시각장애인이 외출을 꺼리는 이유는 편의 시설 부족과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이 가장 큰 원인이다. 시각장애인이 외출 시 겪게되는 어려움은 안내견의 출입을 막거나 흰지팡이 사용을 방해하는 장애물 또는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이미지,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시각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보호자 또는 자원봉사자와 같은 타인의 도움에 크게 의존한다. 때문에 몸이 불편해 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외부의 시선을 신경쓰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외출 빈도와 관련된 교차 분석

구분	내용	선천적		후천적	
		전맹(명)	부분(명)	전맹(명)	부분(명)
외출빈도	주 3회 미만	2	0	1	2
	주 3회 이상	1	2	0	4
빈도가 낮은 원인(중복선택)	신체 또는 의사소통 불편함	2	2	1	3
	주위 시선	3	2	1	4
	편의 시설 및 안전시설 부족	2	1	1	8

외출빈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천적 전맹 시각장애인의 외출 빈도가 낮았다. 전맹시각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불편함으로 보호자 또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흰지팡이 또는 안내견의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위 시선이나 편의 시설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빈도가 높았다. 반면 부분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이 제한되지만 장애 정도에 따라 일상 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외출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많은 부분시각장애인 역시 주위 시선으로 인한 불편함과 편의, 안전 시설의 부족을 외출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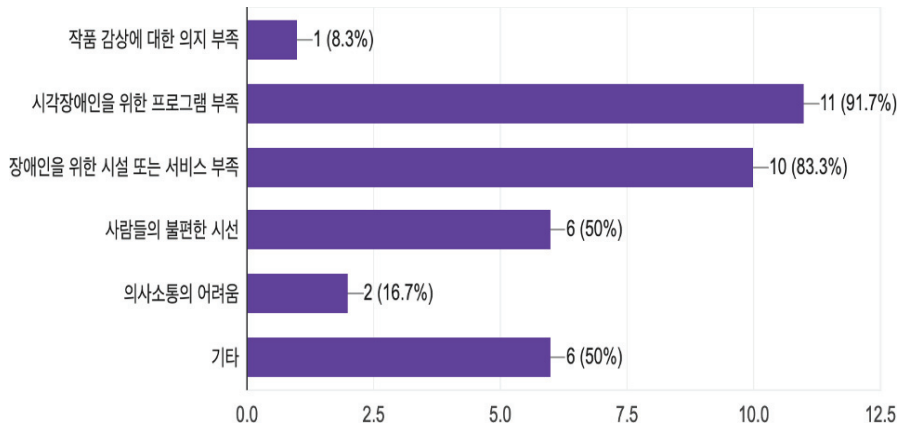
두 번째는 미술관 방문 경험에 대한 질문이다. 약 65%에 가까운 시각장애인은 1년간 미술관에 방문한 경험은 1~3회 미만, 약 25%의 인원은 4~7회 미만 방문한다고 답하였다. 정안인(正眼人)의 경우 지난 1년간 미술전시회 관람 횟수에 대해 약 35% 인원이 5회 미만 미술관에 방문한다고 답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물론 외부에 적극적인 대학생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이지만 외출 횟수와 비교해 많은 시각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주로 방문했던 미술관 또는 프로그램을 조사해보면 시각장애인의 참여를 권장하는 전시 프로그램으로 주로 시각장애인 복지관 또는 지역사회에서 주관하는 전시가 많았으며 오히려 국립미술관의 방문 횟수는 많지 않았다.

세 번째, 시각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설문하였다. 설문참여자 12명 중 6명은 '약간 있음'이라 답하였고 2명은 '매우 많음', 나머지 4명은 '없음 또는 거의 없음'이라 답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설문 참여자 중 약 70%의 인원이 문화예술 활동에 흥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네 번째,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이 국립미술관의 방문 횟수가 적은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

였다. 국립미술관의 경우 정기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의 수가 적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넓은 전시 환경에 비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 때문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다섯 번째, 미술관에 방문하여 불편했던 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2-3]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3] 설문 조사 답변 결과

공통으로 프로그램 부족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선택했으며 기타 의견으로 독립적인 감상이 아닌 자원봉사자 또는 큐레이터의 도움이 불편하다는 의견과 오디오 해설에 대한 아쉬움 역시 있었다. 기존의 오디오 해설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아닌 정안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보 수집을 오디오 해설에 의존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이것’, ‘저것’ 등 지시어 사용 또는 원근, 모양, 질감, 색과 같은 시각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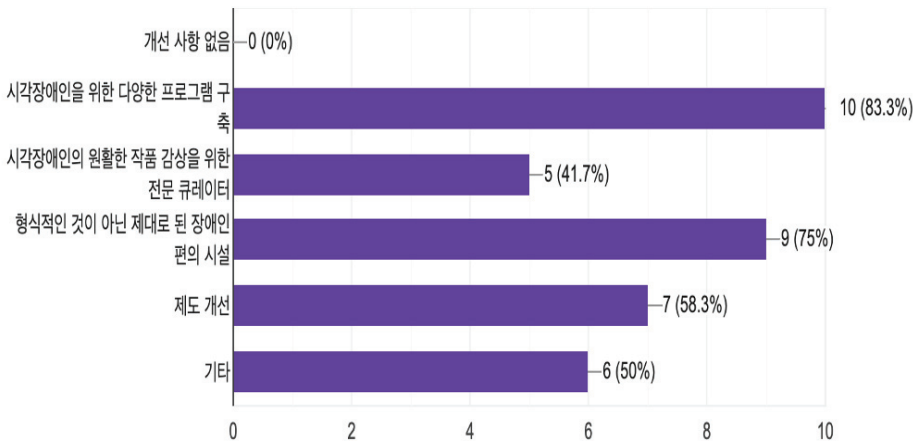
[표 2-3]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차 분석

구분	내용	선천적		후천적	
		전맹(명)	부분(명)	전맹(명)	부분(명)
문화예술 참여빈도	년 3회 미만	3	2	1	2
	년 3회 이상	0	0	0	4
참여빈도가 낮은 원인(중복선택)	감상 의지 부족	1	0	0	0
	프로그램 부족	2	2	1	6
	시설 또는 서비스 부족	3	2	1	4
	사람들의 시선	2	1	1	2
	의사소통의 어려움	2	0	0	0
문화예술 관심정도	없음	2	1	1	0
	있음	1	1	0	6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 빈도에 대한 질문에서 [선천적 / 후천적], [전맹 / 부분시각]의 뚜렷한 차이가 도출됐다. 전맹의 경우 [선천적 / 후천적]과 관계없이 거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경우 [전맹 / 부분시각]과 관계없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낮았다. 전맹 또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경우 색에 대한 인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직결된다. 인터뷰에 의하면, 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 전용 오디오 해설이나 그림에 대한 상세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후천적 부분시각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1년간 3회 이상, 많게는 7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는 정안인의 참여율과 비교했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수치로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알 수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정도에서도 알 수 있듯 후천적 부분시각장애인은 모두 문화예술 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장애 정도에 따라 부분시각장애인 역시 제한된 시각으로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을 느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족함에 대해 의견을 주었다. 국내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많은 시각장애인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체적으로 선천적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설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크게 불편함을 나타냈고, 부분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흥미있는 프

로그램의 부재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내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형식적인 느낌이며, 작품 감상에도 크게 느끼는 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작품이 대부분이었으며, 시각장애인 예술가의 창작물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부분 시각장애인과의 인터뷰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진정한 공감이나 이해 없이는 시각장애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작품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전맹 시각장애인 대부분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주었다.

여섯 번째 설문은 미술관의 전시 환경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한 조사이다. [그림 2-4]는 이에 대한 답변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이 역시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하여 답변하였으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답변도 과반을 차지했다. 또한, 안내견 또는 유도 블록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대한 답변 역시 많았다. 이 밖에도 기타 의견으로 시각장애인 작가의 작품을 도입하거나 시각장애인 큐레이터의 해설 등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방향을 의견으로 나타냈다.



[그림 2-4] 설문 조사 답변 결과

[표 2-4] 문화예술 활동 개선사항과 관련된 교차 분석

구분	내용	선천적		후천적	
		전맹(명)	부분(명)	전맹(명)	부분(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중복선택)	프로그램의 다양화	1	2	1	6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큐레이터	0	1	0	4
	장애인 편의 시설	3	1	1	4
	제도 개선	1	1	2	3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전맹 / 부분시각] 사이의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3,4,5의 결과와 유사하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을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반면, 부분시각장애인의 경우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 큐레이터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개선된다면 대다수의 시각장애인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각장애인의 경우 그 동안의 부정적인 경험의 영향으로 더 이상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답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다행히 여전히 많은 시각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개선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에 부족한 부분이 노출되었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부족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없는 작품은 시각장애인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쌓여 더 이상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기대가 없어질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나 소극적인 자세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_국내 미술관의 전시 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지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박물관과 미술관 공공지원의 근거와 역할은 미비했다(양지연, 2016). 국립 전시 관람 시설임에도 장애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미흡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내 유물 설명이 수록된 점자 도록 3권과 점자 안내판 또한 존재하지만, 전시물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돕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시각장애인의 관람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촉각전시는 현재 어린이 박물관 체험형 전시 코너에 한정된 경우가 많다. 국립 전시 관람 시설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전시실 상시 마련 및 모형 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촉각 전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설치가 제안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안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11조에 의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동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40조에 의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은 강제성이 부족하며 각 지자체에 관련 부처의 부재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표 2-5] 안내견이 겪는 차별의 예시

구분	예시
1	시각장애인 A씨는 이동을 위해 교통약자 콜을 접수했으나 택시가 잡히지 않아 카카오택시를 이용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A씨의 안내견 이용을 거부했고 장애인 택시 이용을 강요했다. 20분간의 실랑이 이후 택시기사는 파출소, 수원시청,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안내견의 이용에 대해 문의했으나 모르겠다는 답변과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수원시청의 한 담당자의 “태워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다(동아일보, 2020.06.10.).
2	2020년 11월 30일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돌봐주는 자원봉사자(퍼피워커)와 안내견이 롯데마트 잠실점을 방문했으나 매니저로 보이는 지원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아서고, 봉사자에게 고성을 질렀다. 장애인이 아닌 자원봉사자가 왜 안내견을 데리고 입장하느냐며 항의했고 그 상황에 겁을 먹은 안내견은 매장에 소변을 보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견 또는 안내견 훈련자 및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한 롯데마트로 많은 항의가 빗발쳤고, 이에 롯데마트 측은 안내견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조선일보, 2020.11.30.).

[표 2-5]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실제로 겪은 차별의 예시이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는 시각장애인 또는 장원봉사자가 감당해야하는 문제가 되었다.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차별금지법을 담당자가 아닌란 이유로 방관하는 일, 사회적 이슈 이후 사과하는 대응 등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관련해 여전히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출처: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그림 2-5]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안내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점형 유도 블록에 대하여 건축물의 주 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형 유도 블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표 2-6] 점형블록과 선형블록 설치기준(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2018)

구분	세부 기준
점형블록	점형블록은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점형블록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또는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
점형블록	점지블록의 경우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부차식으로 설치 가능
선형블록	대상시설의 주 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유도 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
선형블록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며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함. 돌출선의 상단부는 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cm로 설치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알리고 경로를 안내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도 블록의 설치와 관련하여 알맞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유도 블록의 경우 시

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시각 시각장애인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미관상의 이유로 바닥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여 저시각 시각장애인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출처: 한국일보(2019.10.10.)

[그림 2-6] 바닥과 유사한 색을 사용한 유도 블록 예시

또한, 시각장애인도 알지 못하는 엉터리 유도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유도 블록의 경우 선형과 점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잘 구분하여 사용해야 시각장애인의 혼란을 줄이며 제대로 위험 또는 목적지를 안내할 수 있다. [그림 2-7]처럼 시각장애인조차 알지 못하는 엉터리 유도 블록을 사용하거나 유도 블록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이는 안전사고와도 연결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다.



출처: 한국일보(2019.10.10.)

[그림 2-7] 시각장애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유도 블록

하지만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없으며, 관련 부처의 감시나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부분이 보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앞서 언급한 법령 등이 강제성이 부족하거나 처벌이 약해 사실상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치명적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전시장 또는 미술관 같은 실내에서 길을 찾고, 입구를 찾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자원봉사자 또는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작품 감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해당 문제에 대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촉지도를 활용한 방식이다. [그림 2-10]처럼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전시장 내부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촉지도를 활용해 머릿속에 전체적인 구조를 입력한 뒤 흰지팡이 또는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촉지도를 활용한 방법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익숙하며 효과적인 방법이다.



출처: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그림 2-8] 시각장애인을 위한 축지도 예시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입구를 찾거나 화장실의 남/녀 구분을 위해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시장의 전체적인 구조는 축지도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사실 입구를 찾는 일은 음성안내장치 또는 유도신호장치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 시각장애인이 건물의 주 출입구를 찾지 못하거나 화장실의 입구를 찾지 못하는 것은 미술관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림 2-9]와 같이 출입구를 강조하기 위해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부분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음성 안내장치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림 2-9] 입구 등을 강조하기 위해 빨간색으로 표시

장애인 차별 방지법에 의해 장애인 역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과 서비스 등에서 차별 없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위의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Barrier-Free 전시 환경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3_해외 미술관 프로그램 사례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미술관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상시 준비되어 있으며 많은 시각장애인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활발한 감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창작활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영국의 경우 ‘평등과 다양성법’을 제정하여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인 문화다양성 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향상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장애예술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다. 미국의 척 크로스나 영국의 잉카 쇼니베어와 같이 장애를 갖고 있는 유명 예술가가 장애 때문이 아닌 작품성이나 예술성으로 인정받아 주류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예이다.

1)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Picture This! Workshop’와 ‘Seeing Through Drawing’

미국의 대표적인 미술관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미국 뉴욕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1870년 개관하였으며 1880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여 본격적으로 전시회가 운영되었다. 현재는 매년 약 5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다.

메트로폴리탄의 경우 ‘Picture This! Workshop - Behind the Scenes: Textile Conservation’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작품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또는 부분시각장애인을 위해 작품에 대한 상세한 언어적 설명과 촉각을 활용한 활동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For Visitors Who Are Blind or Partially Sighted

Take part in verbal imaging and touch tours as well as art workshops for kids, teens, and adults.

출처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그림 2-10] 작품을 직접 손으로 느껴보는 감상자

시각장애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촉각을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감상한 작품에 대하여 상세한 언어적 설명까지 함께 감상하며 보다 풍부한 감상이 가능하다. 'Picture This! Workshop - Behind the Scenes: Textile Conservation'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Seeing Through Drawing

For visitors who are blind or partially sighted

Be inspired by the Museum's collection and learn innovative drawing techniques through workshops that include experimentation with materials, verbal description, and creative response to works of art.

출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그림 2-11] 작품을 감상한 뒤 창작활동 체험

‘Seeing Through Drawing’은 직접 창작활동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여러 전시를 관람한 후 다양한 그리기 기법을 통해 작품을 창작하는 경험을 해 볼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진행되어 많은 시각장애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작품 감상뿐만 아니라 직접 창작활동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인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메트로폴리탄의 경우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직원을 참여시킨다. 이러한 노력은 작품을 눈이 아닌 손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들 역시 충분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2)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 ‘Mind’s Eye’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은 1973년 개관한 미국 뉴욕 맨하튼 89번가에 위치한 현대 미술관이며,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그리고 현대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있다. 2016년 자료 기준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미국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2008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Mind’s Eye’와 언어적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투어와 워크숍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언어적 설명, 대화, 감각적 경험, 창작 기회 등을 제공한다. ‘Mind’s Eye’에는 예술가, 학자, 에듀케이터 등 다양한 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구겐하임 미술관은 2013년부터 미술관 홈페이지와 음원 공유 서비스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가이드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미술관의 스케줄에 맞춰 프로그램의 일정이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된다.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한 뒤 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처: 구겐하임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그림 2-12] 구겐하임 미술관의 “Mind’s Eye”

3) 미국 휘트니 미술관 ‘Verbal Description and Touch Tour’

미국 뉴욕에 위치한 휘트니 미술관은 1931년 설립되었다. 휘트니 미술관에서는 ‘Verbal Description and Touch Tour(언어적 묘사와 터치 투어)’를 제공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감상을 경험할 기회를 준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공식 운영 시간 이외의 시간대에 진행된다. 감상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20세기와 21세기의 미국 미술 작품들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에듀케이터는 전시된 작품들에 관한 상세한 언어적 설명을 제공하며 또한 프로그램 중에는 휘트니 미술관의 입체 모형이나 촉각 다이어그램 등의 촉각 자료를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이해를 돕는다. 나아가 투어에서 다루는 주제나 전시에 관한 공연과 강연 등의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개최되기도 한다. 투어 참여를 위해서는 3주 전에 미술관에 요청하면 미술관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출처: 휘트니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그림 2-13] 휘트니 미술관의 ‘Verbal Description and Touch Tour’

4) 영국 테이트 미술관 ‘Audio Described Tour’와 ‘Touch Tour’

테이트 미술관의 분관 중 런던에 위치하였으며 2000년 개관하였다. 2019년 기준 약 590만 명의 방문객 수를 기록했으며 영국에서 대영 박물관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테이트 브리튼과 테이트 모던은 시각장애인 관람자를 위한 ‘Audio Described Tour(오디

오 묘사 투어)'와 'Touch Tour'를 운영한다. 오디오 묘사 투어에서는 상설전이나 특별전에 대해 사전에 학습한 가이드가 시각장애인 관람객에게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정안인이 아닌 시각장애를 지닌 가이드가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시각장애인 관람객이 보존용 장갑을 끼고 작품을 실제로 만져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Touch Tour'는 투어를 인솔하는 가이드가 관람자와 함께 미술 작품의 구성과 재료,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하여 토의하며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출처: 테이트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그림 2-14] 시각장애인의 작품 감상 모습

5) 일본 갤러리 톰

일본 도쿄 시부야에 위치한 사립 미술관 갤러리 톰은 시각장애인 아들을 둔 갤러리 디렉터 하루에 무라이마에 의해 1984년 설립되었다. 'Gallery TOM'에서 'TOM'은 'Touch Our Museum'의 약자로 미술관 명에서 알 수 있듯이 갤러리 톰은 시각장애인 관람자가 작품을 만지며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관람객들은 작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손을 씻고 금속 장신구를 제거한 후에 작품들을 만지며 관람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이 미술 작품을 직접 창작할 수 있는 활동 기회를 제공하거나, 연주기들을 초청하는 음악 워크숍 등의 부대 행사를 함께 개최하기도 한다.



출처: 갤러리 톨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그림 2-15] 갤러리 톨의 모습

4_국내 미술관 사례

국내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은 매우 드물다. 실제로 국내의 국공립 및 사립 미술관을 통틀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곳은 국립중앙박물관 한 곳뿐이다. 그 밖에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에도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소수 존재하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으며, 존재하는 프로그램마저 간헐적으로 진행되거나 이벤트로 단발성에 그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2018년 실시된 “어떤 감각”과 같이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연 2회 진행되었을 뿐이다. 참가자의 장애 종류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이었으며 시각장애인에게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은 아니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국내 미술관 또는 전시장에서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례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1) 어둠 속의 대화

198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안드레아스 하이네케 박사에 의해 시작된 어둠속의 대화는 32년나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전세계 32개국 160개 지역에서 12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체험한 전시이다. 국내에는 북촌 전시관이 있으며 누적관람객 수가 45만명을 넘었다.



출처: 어둠속의 대화 공식 홈페이지

[그림 2-16] 어둠속의 대화 홈페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지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어둠 속의 대화는 완전한 어둠 속에 꾸며진 7개의 테마를 로드 마스터와 함께 100분간 시각 이외의 감각으로 체험하는 신비롭고 이색적인 능동적 참여형 체험 전시이다. 어둠 속의 대화는 30개국에서 진행되었으며, 1988년 이래 전세계 850만 명 이상이 체험했다. 한국에서는 2009년 서울 북촌에서 오픈한 이후 2015년 기준 누적 관람객 수는 21만명이다. 완벽한 어둠 속에서 길을 안내하는 로드 마스터는 시각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일상인 어둠 속을 정안인이 체험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이다. 약 100분간의 흥미롭고 즐거운 경험을 통해 어둠은 인간이 가진 무한한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매개체가 된다.

해당 전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시각장애를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전시 활동이다.

2)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개관하였으며 2019년 기준 268만명의 관람객이 찾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술관이다.

국립 현대미술관에서는 개관 50주년 기념을 맞아 <광장:미술과 사회 1900-2019>에서 시각장애인이 감상 가능한 전시를 개최했다. 각 전시의 소개 및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접자, 촉각 인쇄물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해설을 제공했다. 이러한 자료 제공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접근센터의 전문가 15명이 참여하였다. 시각장애인이 감상 가능한 이번 전시에는 특히, 이중섭의 ‘세사람’, 날리니 말리니의 ‘판이 뒤집히다’ 등의 유명 작품이 촉각 자료로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해당 자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미술관 안내데스크를 통해 제공되었다. 2019년 9월 시작해 2020년 2월에 종료한 해당 전시에는 시각장애인 전용 오디오 해설이 국내 미술관 전시 관리를 위해 최초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아직 국내 미술관에서 한계가 나타났다.



출처: 한국경제(2019.12.26.)

[그림 2-17] 국립현대미술관 '광장'전

3) S-Gallery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S-Gallery는 서울 봉천역 근처에 2016년 오픈하여 시각장애인 대체도서, 촉각교재, 촉각명화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습교재 및 생활용구 체험뿐만 아니라 초대전 등 다양한 지역사회 내 열린 공간으로써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고 있다.

S-Gallery의 경우 모든 작품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작하여 전시한다. 유명 명화를 재해석하여 시각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식으로 제작되며 촉각뿐만 아니라 청각과 후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다만 대부분의 작품이 대학생의 재능 기부 형태로 제작된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복지관 내에 위치한 시설로 많은 시각장애인이 편하게 찾아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데일리굿뉴스(2017.01.02.)

[그림 2-18]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S-Gallery에서 개최한 촉각명화전

03. 정책 제언

1_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제언

1)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작품감상을 위한 전시환경 구축이 필수조건. 실제로 시각장애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 필요.

가) 유도 블록

시각장애인의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유도 블록이 미술관 또는 전시장에 미적인 목적 또는 전시의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엉터리 유도 블록이 사용되며 바닥 색과 비슷한 유도 블록 사용으로 부분시각장애인과 전맹 시각장애인의 인지를 방해하기도 한다. 또한, 중간 중간 유도 블록이 끊기는 등 국내의 대부분의 전시장에는 정확한 유도 블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국립미술관 등을 제외한 사설 전시장의 경우 사실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블록이 제대로 설치된 곳이 없는 상태이다. 시행령 등 정책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는다.

유도 블록의 경우 점형 유도 블록과 선형 유도 블록으로 나뉘는데 점형 유도 블록은 위험물이나 위험 지역을 알리는 역할이며 선형 유도 블록은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에서 목적 방향으로 설치하여 정확한 방향을 표시하는 역할이다. 따라서 각 목적에 적합한 유도 블록이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주 출입구, 점자 안내판 등 필수적으로 유도 블록이 설치되어야 하는 곳에 정확히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점자블록은 저시각 시각장애인을 위해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사용을 권장한다. 바닥과 비슷한 색은 저시각 시각장애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해야 한다. 장애인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유도 블록은 반드시 평행하고 연속되게 설치되어야 하며, 따라서 중간에 끊기거나 평행하지 않게 설치된 곳이 없도록 정기적인

확인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립 전시장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관람객의 비율과 그에 따른 비용 문제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설비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 또는 세제혜택 등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과 동시에 유도 블록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수립하여 각 전시장의 유지보수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내견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게 눈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대중교통, 식당 등 여전히 안내견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일이 발생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된다. 김예지 의원이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0년 6월 19일 발표했다. 개정법률안 발표와 함께 안내견 출입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많은 사람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출입 거부와 같은 일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광고 및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개정 이후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차별 방지법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이서영, 김규정, 2020). 홍보 활동 이외에도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장애인 안내견의 인식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2_서울시 차원의 정책 제언

1) 시각장애인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되어야 함. 서울시 차원에서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

특히, 사립미술관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비용 문제'를 꼽는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큰돈을 들여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금의 형태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미술관에 시각장애인 직원을 배치시켜 프로그램 기획단계와 편의시설 구축 등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실효성 있는 편의시설 구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시각장애인의 취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그들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촉각을 활용한 작품 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이며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촉각을 활용한 감상 프로그램이다. 시각이 제한된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체감각인 촉각이 상대적으로 가장 발달하기 때문이다(정원미, 한주희, 양성태, 2012). 따라서 3D 프린터, 촉각 프린터 등을 활용하여 유명 명화를 재현한 뒤 촉각을 활용한 감상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촉각 인쇄기술을 통해 미술 작품을 재현한 뒤 촉각을 활용한 작품 감상은 사실 이전에도 자주 사용되던 방법이다.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의 공식 체험 전시인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다'는 얼마 전 국내에서 개최되며 많은 사람이 고흐의 작품을 눈이 아닌 촉각과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작품 감상을 경험하였다. 촉각을 활용하여 작품의 붓 터치, 화법, 질감 등을 느낄 수 있으며 동시에 청각을 활용한 효과음, 분위기에 어울리는 배경음 등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안인 역시 이전보다 풍부하며 다양한 전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림 3-1] 3D 프린터를 활용한 촉각 작품

휴먼ICT융합센터는 시각장애인의 미술 향유권 확대를 위한 Blind-Touch를 제안하였다(Jorge Iranzo Bartolome, Luis Cavazos Quero, Sun Hee Kim, Myung Yong Um, Jun Dong Cho, 2019). Blind-Touch는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그림 3-1]처럼 작품을 재현한 뒤 Touch를 활용해 작품과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촉각을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하며 궁금한 부분을 두 번 터치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효과음이 나오고 세 번을 터치하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해외 전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촉각을 활용한 전시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하며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나) 시각장애인 참여 형태의 창작활동

미술의 창작활동에서 시각은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미술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도전과 같은 일이다. 하지만 전문적인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시각장애인 작가들이 존재하는 만큼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역시 창작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서영희, 윤준성, 2017). 촉각, 청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작품을 경험한 뒤 자신의 느낌에 따라 작품을 그려보거나 만드는 과정을 통해 창작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같은 그림에도 시각장애인마다 서로 다른 느낌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으며, 자신만의 느낌을 살려 자유로운 창작을 할 수 있다. 창작을 통한 재해석 과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은 미술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높일 수 있으며, 평소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내 미술관의 특성상 상시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안인 역시 눈을 가리고 작품을 감상하며 재해석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과정을 통해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와 다중감각을 활용하여 창의력 발달 등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국내 미술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애인 예술인이 꾸준히 활동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예술인은 시각장애인의 관점에서 작품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시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여 창작 역량을 개발시켜 활발한 창작 활동으로 이어져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면 더욱 많은 시각장애인이 미술관을 찾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2) 대부분의 미술관에 구비 된 오디오 해설의 경우 시각장애인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음. 오디오 해설의 의존도가 높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해설 마련이 필요.

시각이 제한된 시각장애인의 경우 작품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오디오 해설을 통해 수집한다. 하지만 기존의 오디오 해설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아닌 정안인에 초점을 둔 형태로 제작되었다.

국내의 경우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술전시관 최초로 시각장애인 전용 오디오해설을 제공했다. 이는 기존의 오디오 해설은 시각장애인이 작품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시각장애인 전용 오디오 해설의 필요성을 인지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그 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충분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의 미술관, 박물관 중 약 20%가 집중되어있는 서울시에서 앞장서 이러한 노력을 해야한다.

기존의 오디오 해설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작품 감상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이것', '저것'과 같은 지시대명사를 사용한 부분, 색, 질감 등에 대한 정보

누락, 작품 내의 중요 사물의 위치, 원근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눈을 통해 얻는 정보도 기존의 오디오 해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안인과 시각장애인의 감상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차별화된 오디오 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해설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안인의 경우 오디오 해설이 없어도 시각을 통해 작품의 크기, 원근, 색상, 모양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적 정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작품 설명, 시대적 배경, 작가에 대한 설명 등 작품 이해를 위한 내용 역시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이것’, ‘저것’ 등 지시어를 포함한 오디오 설명은 피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익숙한 지시어, 방향 등을 활용한다면 시각장애인의 작품 감상을 도울 수 있다.

[표 3-1]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해설 지침

지침	내용
방향을 지시하라	시계 숫자 활용
	좌우에 대한 설명을 직시할 경우 기준점 제시
유추를 이용해 만질 수 없는 개념들을 설명하라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을 이용한 비유 사용
장면의 실연을 통해 이해를 권장하라	감상자가 자신의 신체로 작품 속 대상을 따라할 수 있도록 유도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음성해설문이 작품의 외형적 묘사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

출처: Art beyond sight

[표 3-1]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해설에 필요한 지침을 나타낸 것이다(Elisabeth, 2007). 해당 지침을 활용한다면 시각장애인의 작품 감상에 유용한 오디오 해설을 제작할 수 있다.

[표 3-2]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해설 구성요소 (김영인, 2019)

분류		내용	
내재적 정보	표준정보	작품 제목, 제작년도, 제작 매체, 크기	
	소재	작품이 묘사하는 대상	
	형태	화면에 등장하는 대상의 형태	
	색감	화면에 등장하는 대상에서 두드러지는 색감	
	재료 및 표현방식	재료의 물성 및 고유한 표현 기법	
외재적 정보	시대적 배경	작품 제작 당시의 역사적 배경	
	특이사항	작품의 제작 혹은 소장예 관한 기타 특이사항	
	작가	작업성향	작가의 대표적 작업 방식
		생애	작가의 생애 중 주목할 만한 사항

[표 3-2]는 오디오 해설의 구성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시각장애인이 작품을 감상할 때 필요한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해당 정보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 및 제도 개선과 장애인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내의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적을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시각장애인 또는 장애인 예술의 활성화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이병화, 2018). 시각장애인 역시 누군가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국가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시각장애인에게 실제로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시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자세한 통계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기존의 자료의 경우 최신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인구는 얼마이며,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활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금의 규모, 사업의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04. 결론

1_연구 결론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전시장, 미술관 등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기 위한 욕구가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쉽게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쌓일수록 시각장애인은 점점 문화예술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소외되어 왔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 안 된다. 시각장애인 자연스럽게 전시장을 찾아 누군가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감상이 가능하도록 시각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전시장 환경 개선과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 다중감각(촉각, 후각, 청각 등)을 활용하여 작품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흥미 유발 및 작품 이해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또한, 직접 창작활동에 참여시켜 작품 감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재해석 단계를 거치며 작품에 대한 풍부한 감상을 가능하게 한다. 기존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촉각만을 활용한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다른 감각을 활용한 감상법은 시각장애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창작활동을 통해 시각장애인은 장애 극복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장애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만큼 전시장의 환경개선은 시각장애인을 문화예술 활동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Barrier-Free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시각장애인이 누구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감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시장의 환경개선의 요소로 유도 블록, 안내견, 촉지도 및 유도신호장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전시장 환경개선 부분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정책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때에 따라 처벌이나 단속의 수위를 올려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유도 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각 시청 또는 구청 등에는 시각장애인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며 안내견 거부 등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련 정책의 개선 방향과 시청 및 구청 등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이 미술관에 찾아 원활하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오디오 해설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5개의 지침을 [표 3-1]로 나타내었다. 오디오 가이드에 반드시 필요한 구성 요소에 대한 가이드는 [표 3-2]로 나타내었다. 두 종류의 지침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해설을 구성한다면 시각장애인의 미술 작품 이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충주 성모학교에서는 실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촉각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여 초등학생 학생부터 고등학생 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시각장애인이 참여하여 감상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해당 전시는 실제 시각장애인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이후 다양한 맹학교에서 해당 연구의 전시가 예정될 만큼 성공적으로 전시를 마무리하였다(충주일보, 2020).

2_연구 한계

문화활동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환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했으며 시각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기 위한 편의 시설이나 안전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나 지원 예산 등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러는 사이 시각장애인은 문화예술 활동의 사각지대 속에서 차별을 감수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해결책이나 정책제언을 통해 보다 개선된 전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연구 한계가 존재했다.

연구를 계획하던 단계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문화 활동에서 시각장애인이 차별을 많이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연구의 타겟을 시각장애인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며 시각장애인 이외에도 청각, 지체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며 충분히 많은 양의 표본을 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설문의 결과를 정성적인 평가에 의존했으며 통계 분석과 같은 정량적 평가를 진행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또한 비대면 설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활용하여 표본의 대상이 20대에 집중되었다는 한계도 존재했다. 20대의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교적 문화예술 활동을 접할 기회가 많고 참여 의지도 강한 편이었기 때문에 40대 이상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의견이 누락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시 환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16,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 김영인, 2019, 「시각장애인의 미술관 관람 증진방안 : 감상보조수단과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대학 석사학위논문.
- 김창기, 서정민, 2015,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시각장애인 내비게이션 시스템”, 한국콘텐츠학회. Vol.15(1). pp.24~30.
- 문화관광부, 2007, 「문화시설 내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9, 「예술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서영희, 윤준성, 2017,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기반 커뮤니케이션 아트 - So通전을 중심으로”, 한국영상학회, CONTENTS PLUS 제15권(No.3), pp.41~57.
- 양지연, 2016, “박물관, 미술관 공공지원의 근거와 방향에 대한 재성찰”, 한국예술경영학회. 제40집. pp.233~256.
- 이민경, 2015, “장애인의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pp.61~73.
- 이민경, 2018, “장애인의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pp.73~88.
- 이병화,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방향”, 「장애인뉴스」, 2018년 7월 13일.
- 이서영, 김규정, 2020, “반려동물 문화 개선을 위한 문화콘텐츠와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융합 연구”,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8(3), pp.207~219.
- 이양희, 김상원, 엄문설, 안새미, 조준동, 2019, “시각장애인의 전시예술품 관람 욕구조사”,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pp.457~466.
- 이영라, 2019,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다문화사회연구」, 12(3), pp.251~288.

전병태, 2007,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원미, 한주희, 양성태, 2012,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촉각 지각 능력 비교”, 「한국신경인지재활치료학회. 한국신경인지재활치료학회지」 4권 1호, pp.11~19.

홍애령, 2015,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장애인 무용의 개념 및 가치 재탐색”,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29(1), pp.79~102.

Elisabeth S. Axel . Nina Levent, 2007, “Art beyond sight: A resource guide to art”, Mijinsa.

Kim, Y. I. 「Methods to Improve Art Museum Access for the Blind: Focusing on Assistive Tools and Museum Education Program」,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Art Managment Master's thesis (2019): 52-57.

Jorge Iranzo Bartolome, Luis Cavazos Quero, Sun Hee Kim, Myung Yong Um, Jun Dong Cho, 2019, “Exploring art with a voice con-trolled multimodal guide for blind people”, In Proceedings of the Thir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angible, Embedded, and Embodied Interaction ACM 2019, pp.383~390.

<https://www.gallerytom.co.jp/> (갤러리 톰 미술관)

<https://www.guggenheim.org/> (구겐하임 미술관)

<https://www.law.go.kr/> (국가 법령 정보 센터)

<https://ko.dict.naver.com> (네이버 국어사전)

<http://www.goodnews1.com/> (데일리굿뉴스)

<https://www.metmuseum.org/>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https://www.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www.bokjitime.com/> (복지타임즈)

<https://www.rehabcenter.or.kr/>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https://vangoghseoul.modoo.at/>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다)

<https://mydog.samsung.com/>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https://wis.seoul.go.kr/> (서울복지포털)

<http://www.kavw.org/> (시각장애인여성회)

<http://www.kbufac.or.kr/>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http://www.silwel.org/>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https://www.dialogueinthedark.co.kr/> (어둠속의 대화)

<http://www.ibu.or.kr/>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https://www.cj-ilbo.com/> (충주일보)

<https://www.tate.org.uk/> (테이트 미술관)

<https://kosis.kr/> (통계청)

<https://www.hankyung.com/> (한국경제)

<http://m.hsb.or.kr/>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http://www.kbuwel.or.kr/>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https://m.hankookilbo.com/> (한국일보)

<https://whitney.org/> (휘트니 미술관)

<https://www.index.go.kr/> (e-나라지표)

데일리굿뉴스, 2017.01.02., “손으로 영화 감상해요’...시각장애인 위한 <촉각 영화전>”,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71015.

동아일보, 2020.06.10., “김예지 ‘안내견 거부택시 20분 실랑이에 입 닫은 공무원 한심’”,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610/101450718/1>.

복지타임즈, 2020.12.10., “장애예술인지원법, 오늘부터 시행...예술지원 예산 247억원”,

<http://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38>.

웰페어뉴스, 2017.12.06.,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향유’, 두 마리 토끼 잡아야”,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404>.

조선일보, 2020.11.30., “안내견 막고 고태진 롯데마트...비판 빗발치자 뒤늦게 사과”,

https://www.chosun.com/economy/market_trend/2020/11/30/PMWB5OAEYRDW3GUJ SZCOB3GBA4/.

충주일보, 2020.10.12., “충주성모학교, Blind Touch 전시회 개최”,

<https://www.c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6829>.

한국경제, 2019.12.26., “국립현대미술관, 시각장애인 작품 감상 보조자료 제공”,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912264245Y>.

한국일보, 2019.10.10., “시각장애인도 모르는 엉터리 점자블록, 곳곳에 방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10091051026072>

작은연구 좋은서울 20-06

문화예술 활동 시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환경에 대한 연구

발행인 서왕진

발행일 2020년 12월 23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